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태 성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자연의 결을 모티브로한 도자표현 연구

202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 예 학 과
임 재 희

자연의 결을 모티브로한 도자표현 연구

박 태 성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 예 학 과

임 재 희

인 준 서

임재희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20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결’은 자연물의 조직에서 나타나는 모양이나 무늬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패턴과 같은 형태와 다양한 질감을 가지고 있다. ‘결’은 이러한 단순한 질감과 패턴을 넘어 예로부터 우리의 언어 속에 ‘자연의 흐름’ 또는 ‘인간의 삶’ 등을 나타내는 은유적인 표현의 소재로 사용되어왔기에 예술의 조형적인 표현 소재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결을 모티브로 한 조형적 표현에 있어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형상표현의 과정을 통해 도자표현 연구의 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결’의 형태적 특징과 성질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특히 결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결의 외적, 내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결이 나타나는 요인에 대하여 정리하였으며 도출된 결의 속성을 조형표현에 있어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자 하였다.

‘결’의 특징과 속성에 의거한 연구자의 조형표현 방법으로써 결에서 느껴지는 감정에 대한 언어의 정의를 시도하였고, 여기서 도출된 언어에서 느껴지는 연구자의 감성을 도자 조각을 통하여 시각화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결’이 가지는 내재적 의미와 연구자의 감성에 중점을 두어 자연물에서 보이는 결의 이미지를 패턴화하여 형상화하였고, 이러한 형상화를 통해 하나의 조형언어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결의 형상화방법으로써 도자표현에 가장 적합한 성형방법과 장식방법에 대해 시험제작을 시도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일상의 도자소품으로 제작하였다.

이상과 같이 자연의 결이 지닌 속성과 내재된 의미를 바탕으로 결의 조형적 형상화를 통해 도자표현의 영역 확장은 물론 일상에서의 여유와 감성을 전달할 수 있는 도자소품 제작을 목적으로 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동기 및 목적	1
2. 연구방법	2
II. 본론	3
1. 결의 의미 및 속성	3
1) 외재적 측면	3
2) 내재적 측면	7
2. 결의 형상화과정 및 의미	10
3. 제작방법	14
4. 시작품	17
III. 결론	28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결의 형상	4
【표 2】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결의 형상	5
【표 3】 결의 형상에서 알 수 있는 내재적 의미	8
【표 4】 결의 형상화 및 의미	10
【표 5】 물레 성형 과정	14
【표 6】 시간에 따른 조각 과정	15
【표 7】 유약 표현	16

시 작 품 목 차

【작품 1】 결 I	17
【작품 2】 결Ⅱ	18
【작품 3】 밀려오는	19
【작품 4】 일렁이는	20
【작품 5】 불어오는	21
【작품 6】 흐름 I	22
【작품 7】 흐름Ⅱ	23
【작품 8】 흐름Ⅲ	24
【작품 9】 흔적 I	25
【작품 10】 흔적Ⅱ	26
【작품 11】 결의 단상	27

I. 서론

1. 연구동기 및 목적

‘결’은 자연의 질서와 시간의 흐름 등을 단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요소로서 외양상 보이는 무늬 또는 모양에 따라 다양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이유로 결이란 용어는 자연의 외형적인 모양을 표현하는 기능 이외에 결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안에 담긴 본질 등을 이유로 인간의 삶을 표현할 때 비유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결’은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 측면과 비가시적 측면, 두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기에 보는 이에 따라 서로 다른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각자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에 예술 표현을 위한 소재로서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결의 형상에서 잠재된 조형적 요소는 자연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하며 외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상적 특징들과 여기서 나타나는 속성을 자연의 질서, 또는 삶의 이치에 비유하여 나타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결의 표현 방법으로서 패턴화에 의한 조형적 형상화 작업을 통해 예술적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하여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이 조형 요소로서 ‘결’의 형상표현과 함께 감성적 의미의 ‘결’을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조형적 수단으로서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감상자가 일상 속에서 사유할 수 있는 도자 작품 제작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연이 지닌 결의 형상에서 느낄 수 있는 외형적 특징과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결의 외재적 측면과 내재적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먼저 결의 외재적 측면에 있어서는 자연에서 나타나는 형상적 특징을 포착하여 자연물의 조직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결의 형상과 자연의 순환과정 또는 에너지로 인해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결의 형상에 대해 표로 정리하였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속성에 대해 정의하였다.

내재적 측면에 대해서는 앞서 도출된 형상의 특징들을 바탕으로 형상 안에 담긴 의미와 비유를 통하여 조형적 표현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언어로 재정의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조형적 특징뿐만 아니라 감정을 전달해주는 매개체로서 ‘결’의 표현을 위한 패턴화를 시도하였으며 모티브가 된 결을 바탕으로 조각에 의한 조형표현을 시도하였다.

제작에서는 ‘결’의 속성을 담고자 ‘반복’과 ‘조각’을 하나의 필수적인 과정으로 정하고 이에 맞는 물레 성형 방식으로 형태제작을 하였다. 음각을 통해 나타나는 표면의 질감을 강조하기 위한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화기, 합, 접시 등으로 용도를 부여하여 감상뿐만 아니라 실생활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유약의 효과를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결을 나타내고자 색안료 및 유약의 용융에 따른 질감표현을 시도하였다.

이상의 연구 과정을 통해 결의 조형성과 내재된 의미를 확인하고, 연구자의 미감이 담긴 결의 표현 연구를 진행하였다.

II. 본 론

1. 결의 의미 및 속성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인 ‘결’은 나무, 돌 등과 같이 자연물의 조직이 쪼를 지으며 짜인 바탕의 상태 또는 무늬 등을 일컫는 용어이다.¹⁾ 특히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결’의 형상적 특징은 자연의 흐름과 생명력 등을 보여주며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외형을 표현할 때뿐만 아니라 ‘결’의 속성을 지니는 내면의, 비가시적인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자면 물결에서의 결은 외형적으로 물이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마음결에서의 결은 내면의 상태 또는 바탕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이 된다. ‘결’은 가시적인 형상으로는 질감 또는 패턴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사용되는 것에 따라 그 이상의 비가시적 의미와 감성이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결의 속성을 외재적 측면과 내재적 측면으로 나누어 결이 갖는 외형상의 조형성에 대해 살펴보고 그 안에 담긴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1) 외재적 측면

주위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결의 대표적인 현상은 자연의 결이라고 할 수 있다. 대상에 따라 나뭇결, 바람결, 물결, 머릿결, 비단결, 피붓결 등과 같이 다양한 대상의 바탕과 상태를 표현하는 의미로 나타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결의 가시적 형상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나뭇결과 같이 자연물의 조직에 직접적인 모양으

1) 국립국어원, <<https://www.korean.go.kr/>>




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바람결과 물결과 같이 자연의 복합적인 에너지의 흐름에 의해 의외의 피대상체에서 결이 간접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를 근거로 외재적 측면에서는 자연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결의 형상과 에너지와 같은 자연의 흐름을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결의 형상으로 나누어 표로 정리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결의 형상

참고사진	형상의 특징
	<p>뜨거운 용암이 식으면서 암석이 될 때 수직으로 생기는 작은 틈이 풍화 또는 침식으로 인해 커지며 나타나는 결의 형상이다. 판상절리는 침식작용과 지각변동에 따라 수평으로 틈이 생겨 가로로 층이 생긴다. 절리가 보이는 곳은 많은 시간 동안 풍화, 침식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수직, 수평의 선이 층층이 나타나며 반복된 선의 이미지를 보여준다.²⁾</p>
	<p>나이테는 따뜻할수록 성장 속도가 빨라서 옅은 색의 넓은 세포층을 만들고 추울수록 성장이 늦어 짙은 색의 좁은 세포층을 만든다. 이에 따른 세포층이 반복적으로 형성되어 나이테로 나타난다. 온도, 습도, 빛 등에 따라 성장 환경은 나이테의 형성에 영향을 주기에 연대 확인과 과거의 환경조건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러한 나이테의 모양에 따라 결의 형상도 다르게 나타난다.³⁾</p>
	<p>퇴적층은 물과 바람 등의 운반 작용에 의해 운반된 광물이 지표의 낮은 압력과 온도 상태에서 퇴적작용을 거쳐 만들어진다. 풍화작용과 퇴적의 반복으로 인해 조직들이 층을 지며 반복된 선의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대부분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지며 주변 환경과 흐른 시간에 따라 서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기에 독자적 형태의 특성을 보여 준다.</p>

2) 청송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https://csgeop.cs.go.kr>>

【표 2】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결의 형상

참고사진	형상의 특징
	<p>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의 순환 운동이 반복되며 바람이 만들어진다. 바람은 시각적으로 느낄 수 없으나 불어오는 에너지의 파동에 의해 피대상체가 흔들리거나 움직임을 통해 바람결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넓게 펼쳐진 풀들이 규칙적으로 흔들리는 현상의 반복을 통해 바람결이 간접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풍향, 풍속에 따른 움직임에 의해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준다.</p>
	<p>지속적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건조한 모래가 날려와 모래 언덕이 만들어진다. 모래는 풍속, 풍향, 주변 지형에 따라 다르게 쌓이면서 결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모래의 결은 바람뿐만 아니라 밀려오는 물에 쓸려와 쌓여 나타날 수도 있다. 자연스러운 곡선들이 한 방향으로 반복되는 이미지를 보여준다.</p>
	<p>수면에 만들어지는 물결은 바람이 불어오고 물이 흘러가는 현상과 같은 자연에너지의 흐름을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결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에너지의 흐름이 없다면 이와 같은 결의 형상이 역시 나타나지 않는다. 물결은 이러한 흐름의 반복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이며 작용에 따라 다양한 선의 이미지를 보인다.</p>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외재적 측면으로 자연의 결을 살펴보았을 때 가시적 특징은 [시간의 흐름과 축적] 그리고 [자연의 순환과정]이 자연물의 표면에 일정한 패턴 또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시간의 흐름과 축적은 중첩되며 쌓여지는 겹겹의 이미지를 띄고 있으며, 순환과정에서 나타나는 동적인 현상,

3) 한국임업진흥원, <<https://www.kofpi.or.kr>>

즉 소멸과 생성과 같은 반복으로 나타나는 자연의 흔적들은 결의 외적 형상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결’의 외적 형상이 지니는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크게 시간성, 반복성, 고유성이라는 3가지의 속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간성

【표 1】의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결의 형상에서 살펴보았듯 나뭇결 또는 퇴적층 들은 자연이 생성과 소멸의 반복을 통해 하나의 층으로 형성되어 오랜 시간 경과 속에 하나의 독특한 형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형상은 축적된 지난 시간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결정된 형태가 아닌 앞으로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이 남아있기에 ‘결’의 속성에 있어 ‘시간성’은 결의 형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 반복성

바람이 불어오고, 물이 흘러가는 자연의 흐름 속에서 보여지는 ‘결’은 멈추지 않는 에너지의 작용을 통해 만들어진다. 【표 2】의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결의 형상과 같이 지속적인 자연의 순환과정이 반복되며 쌓이거나 흔들리는 동적인 ‘결’의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자연의 작용에 따라 형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렇듯 자연에서 ‘반복’이라는 속성은 결의 형상의 결정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3) 고유성

‘결’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간의 흐름과 반복이라는 과정을 통해 특유의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매 순간의 무한한 자연현상과 에너지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에 절대 동일 할 수 없으며 특정의 고유한 형상으로 나타나기에

‘고유성’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표 1】의 나뭇결에서 볼 수 있듯 같은 종류의 나무여도 만들어지는 ‘결’은 여러 요인에 따라 각각의 개별성을 지니기에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결의 외재적 측면에 있어 앞서 언급한 ‘시간성’, ‘반복성’, ‘고유성’은 결의 형상에 있어 특징을 부여하는 매우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시간의 흐름과 축적] 그리고 [자연의 순환과정]이 근저에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자연의 에너지가 피대상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나타나는 결의 형상은 조형적 가치는 물론 거기에 내재된 이미지의 유추를 통한 감성적인 조형표현의 수단으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내재적 측면



‘결’이라는 단어는 외적 측면에서 살펴본 나무와 돌과 같이 표면의 질감을 나타내지만 결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형상에서 보이는 특징으로 인해 인간의 삶, 혹은 보이지 않는 상태의 비가시적 특징을 표현하고자 할 때 비유와 상징으로써 사용되기도 한다. 내적 측면에서의 결은 이처럼 비가시적인 내면을 표현하는 단어로 성품, 바탕, 상태, 고유한 특성인 성질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기 자신을 이루는 바탕 역시 세월이 흐르며 수련과 인고의 시간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고유한 자신이 만들어져가는 것은 세상 모든 자연의 이치이기도 하다.

이러한 내적 측면에 있어서도 외적 측면에서 나타난 결의 속성인 ‘시간성’, ‘반복성’, ‘고유성’이 그대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아름다운 마음결”, “결이 고운 사람”이라는 표현에 있어서도 외재적 측면의 시간성에

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오랜 수양으로 마음이 다듬어져 고운 성품을 지녔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의 반복은 축적된 시간과 켜켜이 쌓인 층 또는 겹과 같이 비유할 수 있으며 서로 추구하는 가치관, 나아가는 방향성, 성질 등을 뜻하는 의미로 표현될 수 있다. 이 또한 각자 지니고 있는 바탕이나 상태를 일컫는다고 볼 수 있으며 인간의 마음과 성품이 오랜 시간의 성장 과정과 반복적인 삶의 행위를 통해 고유의 심성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의 내면적 측면의 설명에 있어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써 【표 1】 과 【표 2】 의 외재적 측면을 기준으로 형상에서 느껴지는 내재적 의미를 제시하고자 하였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 3 】 결의 형상에서 알 수 있는 내재적 의미

참고사진	형상에서 알 수 있는 내재적 의미
	<p>절리의 틈이 만들어낸 형상은 하나의 결이 만들어지기까지 풍화와 침식작용을 견디며 견고하고 거친 질감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겪는 ‘고난’과 ‘역경’이라는 내재적 의미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p>
	<p>성장, 환경,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나뭇결은 개별적인 고유한 무늬로 자신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이 다른 모양을 가진 ‘지문’과 같이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p>
	<p>풍화작용과 퇴적의 반복으로 겹겹이 쌓여 층을 이루며 만들어진 퇴적층의 결에서는 ‘시간’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배움’과 ‘경험’의 축적으로 만들어져가는 현재 우리의 삶의 결을 느낄 수 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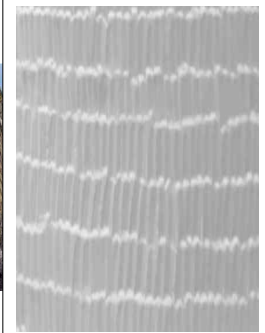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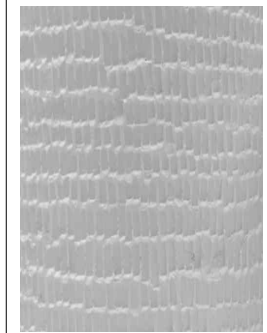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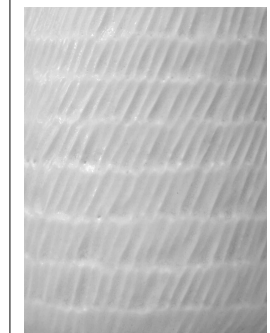
	<p>풍속 또는 풍향에 따라 다양한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바람결의 흔들림에서 ‘휴식’을 느낄 수 있고, 살랑이며 마음에 ‘여유로움’과 ‘한적함’을 주기도 하지만 차갑게 몰아칠 때는 ‘스산함’, ‘쓸쓸함’ 등의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p>
	<p>모래의 결은 물과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남기고 간 흔적과 같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흔적들은 현대의 빠르게 지나쳐가는 시간 속에 남겨져 여운을 가져다 주고, 지나온 과거의 ‘발자취’와도 같은 감정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p>
	<p>수면에 만들어지는 물결은 잔잔히 흐르기도 하고, 큰 물살로 빠르게 지나가기도 한다. 이러한 물결의 움직임에 따라 ‘평온함’ 또는 ‘불안함’과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며 수면 위에 나타나는 물결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와 함께 ‘마음’에 비유되기도 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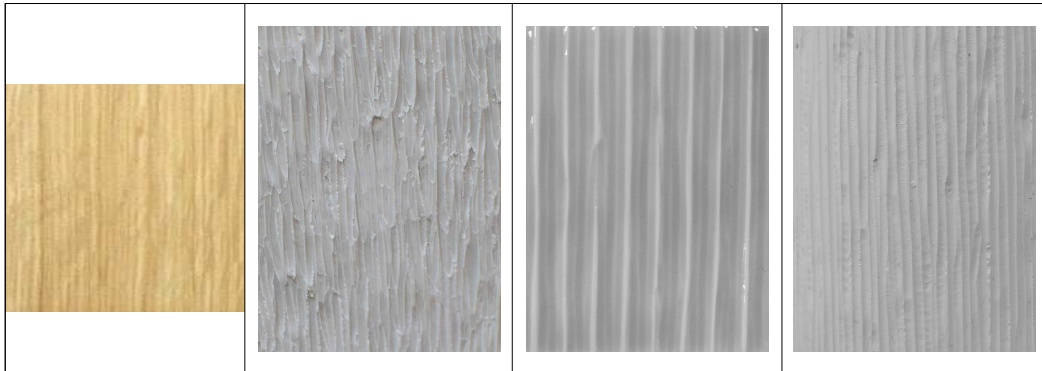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결은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감정 전달을 위한 대체 용어로서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연구자의 미감과 생각에 따라 결의 외형적 형상은 여운, 심상, 휴식과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내재적 의미의 단어로의 변환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연에서 얻어지는 결의 형상에 대한 포착과 활용에 따라서는 다양한 언어로서의 표현과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이것은 곧 은유와 비유를 통한 예술적 조형언어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2. 결의 형상화과정 및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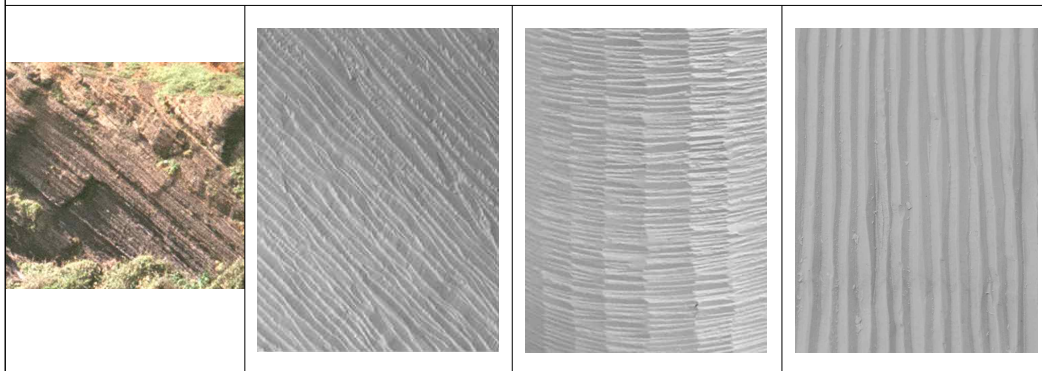
우리가 보지 않는 순간에도 자연의 결은 그 자리에서 만들어지고, 자연의 순환과정으로써 반복되며 나타난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꽃잎 또는 돌맹이와 잔디 등 작은 자연물도 모두 결을 지니고 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는 찾아보지 않고 집중해서 바라보지 않는다면 쉽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결의 순간들을 관찰하고 일정한 영역을 포착하여 조형적 해석을 통해 일상에서의 휴식과 감정 전달을 목적으로 ‘결’의 패턴화를 진행하였다. 본문에서 살펴본 자연의 결을 중심으로 하며 의미와 함께 도표로 정리하였다.

【표 4】 결의 형상화 및 의미

결의 이미지	결의 형상화 및 의미		
			
<p>절리⁴⁾의 모습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도심과는 다르게 그 자체로 순수한 존재로 다가온다. 절리에서 보이는 거친 질감과 계단이 연상되는 형상은 삶의 ‘고난’과 ‘역경’을 느낌을 주기에 위의 사진과 같이 층층이 만들어낸 조각을 통해 ‘강인함’과 ‘견고함’을 보여주고자 하였으며 층의 이미지 안에서 선의 길이와 두께 및 방향성의 변화를 주어 다양하게 나타나는 절리의 선을 표현하였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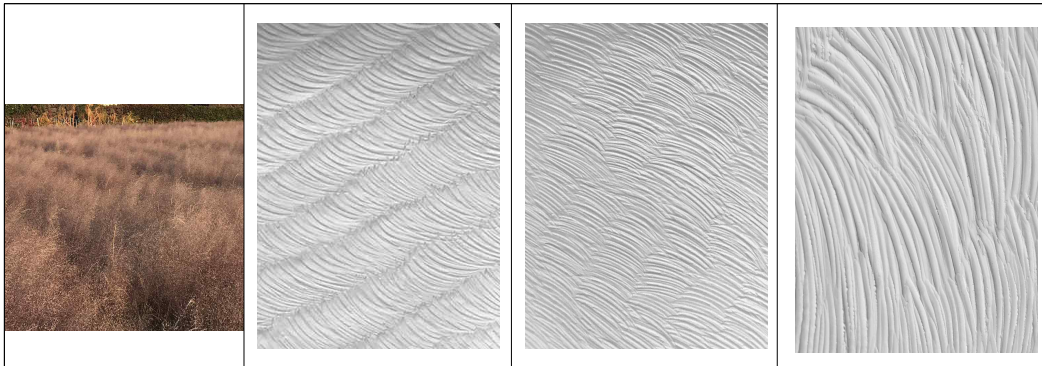
나무의 품종과 주변 환경, 성장 속도 등의 요인에 따라 색과 모양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나뭇결⁵⁾은 복잡한 사회 속에서 각자의 ‘개성’을 만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이러한 나뭇결의 형상은 세로로 반복된 조각을 통해 위와 같이 패턴화하였다. 모두 세로로 조각하였으나 두께와 선의 길이 또는 깊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으며 질감의 느낌도 다르게 다가온다. 나뭇결의 고유한 성질에 ‘정체성’을 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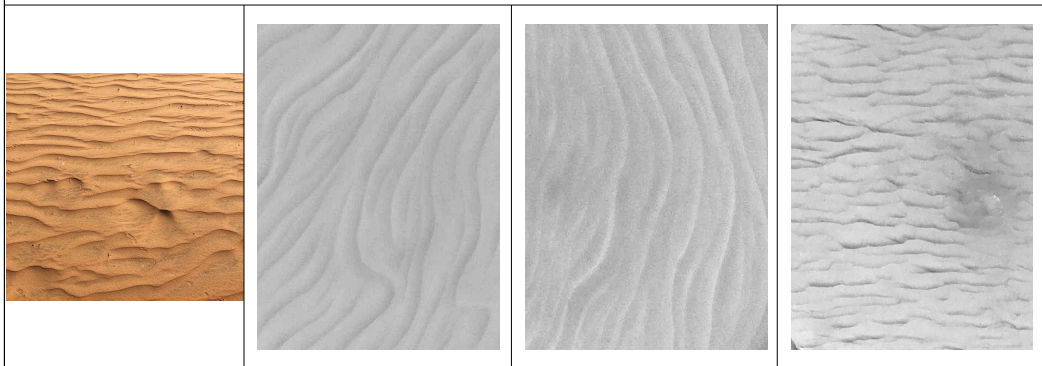
반복과 축적으로 나타나는 퇴적층의 결은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서 만들어지며 형상 안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기에 한참을 바라보게 한다. 퇴적층의 결이 담고 있는 ‘세월’의 표현으로 반복된 선의 조각을 통해 그 안에 담긴 ‘삶의 경험’과 같은 이야기를 담고자 하였다. 위의 사진과 같이 선의 반복을 통한 응축된 느낌의 표현과 선의 굵기 변화에 의한 퇴적층의 패턴화를 시도하였다.

4) 제주도세계지질공원, <<https://www.jeju.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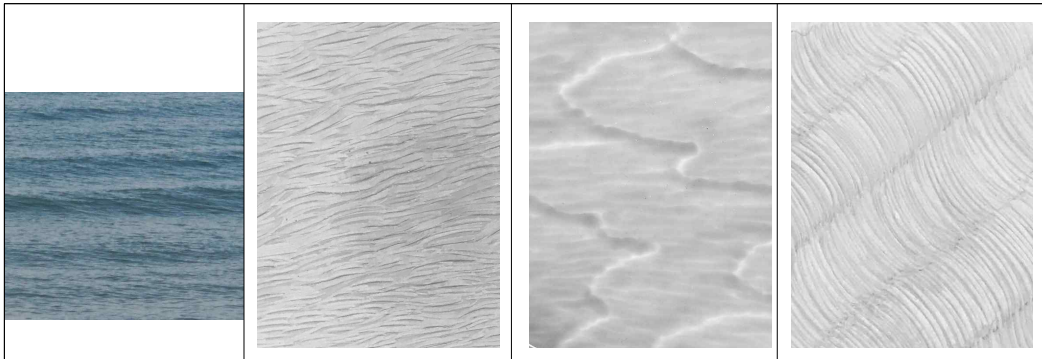
5) 한국임업진흥원, <<https://www.kofpi.or.kr>>



간접적으로 바람에 의해 나타나는 자연의 결은 끊임 없이 움직이고 반복되는 자연의 순환과정을 통해 나타난다. 특히 풀밭이 바람결에 흔들리며 보여주는 형상은 다양한 감정을 전달해준다. 위의 사진에서 왼쪽부터 차례로 강하게 불어오는 바람에서 느껴지는 ‘싸늘함’과 잔잔하게 불어올 때의 ‘평온함’, 가볍게 불어올 때 느껴지는 ‘상쾌함’을 표현하였으며 곡선의 크기와 반복, 방향성을 통해 풍속과 그에 따른 감정을 담고자 하였다.



모래의 결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곡선의 이미지는 바람과 물의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를 자유로운 곡선의 조각을 통해 패턴화하였다. 조각칼이 지나가며 만들어내는 곡선들은 ‘흔적’ 또는 ‘발자취’의 느낌을 주었으며, 정해진 형식 없이 즉흥적으로 조각하는 과정을 통해 본 연구자가 느끼는 고유의 정체성을 모래의 ‘결’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물결이 보여주는 반복된 곡선의 이미지는 율동감을 느끼게 하며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감정과 정서적 휴식을 가져다준다. 위의 패턴화 사진에서 왼쪽은 잔물결이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평온함’, 가운데는 밀려오는 물결에서 느껴지는 ‘설렘’, 오른쪽은 방향이 다른 곡선의 반복으로 율동감과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물결에서 느낄 수 있는 ‘휴식’의 느낌을 담고자 하였으며 불규칙적으로 자연스럽게 조각하여 물결의 패턴화를 시도하였다.




3. 제작방법

1) 형태제작

결의 질감과 패턴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작고 복잡한 형태보다 크고 면적이 넓으며 단순한 기형으로 제작하였으며 접시, 컵, 합, 화병 등의 용도를 부여하여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쓰임을 주었다.

성형 방법에서는 흙 상태의 표면에 음각으로 장식하기 위해 형태의 변형이 적고, 기물의 두께와 크기 조절이 자유로운 물레 성형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결의 고유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하나의 석고 틀로 똑같이 만들 수 있는 캐스팅 방법보다 하나씩 깎아내며 새로운 결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각각 상이한 표면질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표 5】 물레 성형 과정

제작과정			
설명	물레 위에서 면적이 넓으며 단순한 형태로 성형한다.	건조 후 기물의 두께가 너무 얇지 않도록 주의하며 굽을 깎는다.	밑그림을 그리지 않고 흙 위에 바로 조각하여 결을 표현한다.

2) 장식방법

(1) 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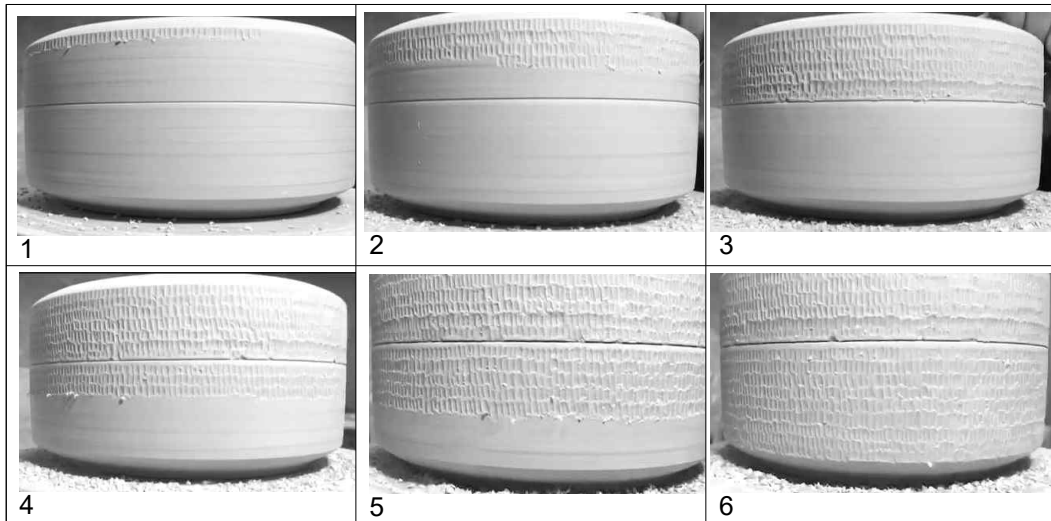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는 자연의 ‘결’과 같이 작품 제작에 있어서 반복된 행위를 통해 시간의 축적을 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틀을 정하여 ‘결’을 표현하였다.

- ① 음각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결의 질감을 표현한다.
- ② 반복적인 조각을 통해 시간의 축적을 담은 결을 표현한다.

조각도 또는 굵칼을 이용하여 짧고 긴 선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질감을 표현하였으며 하나하나의 조각을 통하여 시간의 속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규칙적이면서도 불규칙적인 선들로 나타나는 자연의 ‘결’을 나타내고자 밑그림 없이 바로 흙을 조각하여 자연스러운 결의 느낌을 의도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각도의 크기 및 종류를 조절하며 각기 다른 결을 표현하였다.

【표 6】 시간에 따른 조각 과정



(2) 유약

같은 방식의 조각이어도 유약의 투명도와 색의 사용에 따라 소성 후에 나타나는 표면의 질감과 느낌이 다르다. 표현하고자 하는 ‘결’에 따라 어울리는 유

약을 사용하여 결의 형상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음각된 틈에 유약이 고여지며 전체적으로 스치는 듯한 느낌을 내고자 할 때는 【작품 5】와 같이 철분 함량이 높은 투명유를 사용하여 조각이 많이 강조되지 않고 은은하게 보이게 하였으며 색 안료를 넣어 음각된 부분과 조각되지 않은 부분의 색 대비를 뚜렷하게 나타낼 때는 【작품 9】와 같이 색유약을 사용하여 결의 표현을 강조하여 나타내었다.

【표 7】 유약 표현

유약 표현			
종류	투명유	매트유	색유

4. 시작품



【 작품 1 】 결 I

백자토, 물레성형, 투명유, 환원소성

Ø115×180 (h)mm, Ø95×143(h)mm, Ø75×105(h)mm



【 작품 2 】 결II

백자토, 물레성형, 투명유, 환원소성

each $\varnothing 75 \times 105(h)$ mm

【 작품 1 】 【 작품 2 】 제작의도 :

나뭇결의 반복을 통해 나타나는 느낌을 표현해보고자 하였으며 특히 세로로 새겨진 결의 형상에 중점을 두어 제작하였다. 밑그림 없이 그어진 음각 선으로 간격과 깊이가 불규칙하게 조각하여 표현하였다. 실린더 형태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굴곡을 주어 입체감을 더하고, 식물을 꽂을 수 있는 화병으로 제작하여 조화롭게 공간을 꾸밀 수 있는 쓰임을 의도하였다.



【 작품 3 】 밀려오는

백자토, 물레성형, 투명유, 매트유, 환원소성

each $\varnothing 197 \times 10(h)$ mm

제작의도 :

조각된 결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낮은 접시의 형태로 제작하였다. 바람결에 따라 여러 움직임으로 만들어지는 물결과 모래의 결의 패턴화를 통해 표현하였고, 일상 속에서도 사용하며 잠시나마 휴식을 느낄 수 있는 각자의 결을 찾길 바라며 여러 형태와 유약으로 표현하였다.



【 작품 4 】 일렁이는

백자토, 물레성형, 투명유, 환원소성

Ø280×67(h)mm

제작의도 :

실용적 쓰임을 위해 깊이를 주었고, 테두리 부분에 조각을 통해 장식하였다. 깊이 있고 둥근 접시의 형태와 함께 푸른 유약을 사용하여 한가로운 호숫가를 표현하였다. 햇살에 반짝이며 은은하게 일렁이는 물결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여유롭고 평화로운 느낌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 작품 5 】 불어오는

백자토, 물레성형, 투명유, 환원소성

each $\varnothing 133 \times 20(h)$ mm

제작의도 :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풀잎들, 살랑이며 지나가는 바람, 바람이 만든 수면 위 파동의 형상을 보며 바람의 흐름인 바람결을 다양한 곡선의 반복적인 조각으로 표현하였다. 푸른 유약이 음각 사이에 고여지며 나타나는 곡선들로 은은하게 불어오는 것 같은 바람결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 작품 6 】 흐름 I

백자토, 물레성형, 투명유, 환원소성

∅93×180(h)mm, ∅98×214(h)mm



【 작품 7 】 흐름Ⅱ

백자토, 물레성형, 투명유, 환원소성
Ø90×180(h)mm, Ø92×210(h)mm

【 작품 6 】 【 작품 7 】 제작의도:

결에서 보이는 시간성, 반복성, 고유성을 담아 연구자의 ‘결’로써 나타내고자 하였다. 가로로 켜 조각의 반복과 세로로 켜 조각의 반복으로 결이 만들어지는 방향성을 보여주었고, 단순한 형을 선택하여 표면에 보이는 결의 축적된 효과를 더욱 강조하여 결에 담긴 ‘세월’의 의미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 작품 8 】 흐름Ⅲ

백자토, 물레성형, 투명유, 환원소성,
Ø233×65(h)mm, Ø253×83(h)mm

제작의도 : 결에서 나타나는 속성들을 담고자 하였다. 축적되는 조각을 통해 결의 형상을 표현하고, 시간의 흐르며 쌓여가는 경험의 의미와 삶의 결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전 부분이 넓고, 깊이감 있도록 제작하여 그릇으로의 쓰임을 주었고 음식을 담았을 때도 결의 표현이 잘 보이도록 그릇의 내부에 조각을 하였다.



【 작품 9 】 흔적 I

백자토, 물레성형, 색유, 산화소성

each $\varnothing 75 \times 95(h)$ mm

제작의도 : 길이와 두께 등을 조절하여 비슷한 듯 다른 결의 형상을 나타내었고, 절리의 형상과 같이 층층이 반복된 조각을 통해 강인하고 견고한 느낌을 담고자 하였다. 표면의 강조를 위해 단순한 실린더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색유를 사용하여 태토와 유약의 색 대비를 통해 질감의 느낌을 강조하였다.



【 작품 10 】 흔적Ⅱ

백자토, 물레성형, 색유, 산화소성

Ø140×74(h)mm, Ø140×127(h)mm

제작의도 : 간단한 형태를 선택하여 전면에 조각된 결의 표현이 잘 나타나도록 제작하였다. 뚜껑을 더하여 합(盒)으로의 쓰임을 주었고, 합쳐지면서 결의 형상이 좀 더 응축되고 단단한 느낌으로 전달되도록 하였다. 유약의 용융 효과를 통해 마치 돌과 같은 질감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 작품 11 】 결의 단상

백자토, 슬립캐스팅, 색유, 산화소성

each $\varnothing 45 \times 153 \times 6(h)$ mm

제작의도 : 자연의 '결'에 대하여 단편적으로 떠올랐던 결의 형상을 나타낸 작은 편(片)이다. 입체적 형태보다 평면 위의 조각이 직접적으로 보여지면서 하나의 그림처럼 다가오기에 장식적인 효과를 주기 좋으며, 공간 안에서 일상의 환기를 가져다주기를 바라며 오브제로 제작 하였다.

Ⅲ. 결 론

‘결’은 자연물에서 나타나는 무늬 또는 일정한 형태의 모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연물에서 보이는 결의 외형적 형태가 단순한 모양을 넘어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여기에 감성과 감정을 이입함으로써 새로운 조형언어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결의 외형적 형상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언어로 구체화하였는데 예를 들어 물결에서 보여지는 잔잔함 속에 연상되는 [휴식]이라는 단어의 전제하에 연구자가 느끼는 감성을 더하여 조각의 한 패턴으로 형상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결의 특징과 속성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결의 외재적 측면과 내재적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결의 외재적 측면에서 보이는 가시적인 결의 형상적 특징에는 자연의 에너지에 의한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었으며 주요 요인으로서 [시간의 흐름과 축적] 그리고 [자연의 순환과정]이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여기에 내재된 성질로서는 ‘시간성’, ‘반복성’, ‘고유성’이라는 공통된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내재적 측면에서 결의 갖는 의미를 보자면 예를 들어 본문에서 선정한 절리, 나뭇결, 모래, 물결의 경우 [절리의 결-고난과 역경], [나뭇결-정체성], [모래의 결-발자취], [물결-휴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연의 결을 관찰한 결과를 감정이입을 통해 인간의 삶과 다양한 감정으로 비유하여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결의 형상화과정을 구체화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을 더하여 패턴화를 시도하였으며 조각에 의한 질감과 유약의 조화를

통한 결의 조형적 표현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 있어 조형적 형상표현의 특징은 1) 결의 형상에서 나타나는 선의 패턴화 2) 조각을 이용하여 결에서 오는 질감표현 3) 유약을 통해 나타나는 은은한 색감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외재적 측면의 결에서 나타나는 선의 이미지를 토대로 길이, 깊이, 굵기, 방향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하여 결의 형상을 패턴화할 수 있었고, 이를 조각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만져보지 않더라도 시각적 질감을 표현할 수 있었다. 또한 유약의 용융 효과를 통해 자연에서 느껴지는 은은함을 나타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결을 모티브로 한 도자 표현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결’을 연구자의 조형언어로서 표현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나 유약과 제작방법을 한정시킴으로써 좀 더 폭넓은 형상화를 시도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본 논문을 바탕으로 하여 유약 및 제작방법을 다양화시키고, 다른 자연의 형상들과 접목을 시도하여 무수한 자연의 결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김영기, 《한국인의 조형의식》, 서울 : 창지사, 1991

<학위논문>

- 김상훈, 「시간성의 선적 이미지를 가진 기물 제작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7
- 김요안, 「결의 표현을 위한 소성기법 연구 : 장작가마를 이용한 소다유 소성기법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논문, 2002
- 이선미, 「한지의 '겹과 결'의 속성을 이용한 식물 이미지 표현연구 : 본인 작품 'nature into nature'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석사논문, 2018
- 장태영, 「韻을 통한 '결'의 水墨表現 研究」 홍익대학교 박사논문, 2015

<웹사이트>

- 국립국어원, <<https://www.korean.go.kr>>
- 제주도세계지질공원, <<https://www.jeu.go.kr>>
- 청송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https://csgeop.cs.go.kr>>
- 한국임업진흥원, <<https://www.kofpi.or.kr>>

ABSTRACT

A Study on Ceramic Expressions based on the Motif from textures in nature.

Lim Jaehee

Department of Crafts

Graduates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Gyeol refers to any shape or pattern that appears on the surface of natural objects, having patterns of various shapes and textures. It is believed that Gyeol possesses a value as a formative material for art since it represents various textures and patterns and, at the same time, has been considered as a motif of metaphorical expressions for “the flow of the nature” or “human life” in our language.

Research has been actively conducted in this study to investigate a specific method in the formative expression with the motif of Gyeol and to present a methodology for the study of ceramic expression through the process of shape expression. In order to do so, this study focused on the formality and nature of Gyeol and, in particular, classified it into external and internal aspects to identify the nature of Gyeol. The origins where Gyeol is generated are summariz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Gyeol are

intended to be regarded as a standard in the formative expressio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attributes of Gyeol, this study attempted to define the language for the feelings felt in Gyeol as a formative expression method. And the sensibility of a researcher in the language derived from this attempt is visualized through ceramic carving. In this sense, the study focused on the inherent meaning of Gyeol and the sensibility of the researcher and visualized the images of Gyeol seen in natural objects into patterns. To extent, this study aimed at verifying the usability as a formative language through the visualization.

Finally, the method of making and decorating the most appropriate expression of ceramics was adopted for visualizing Gyeol and the ceramic work was produced based on the results obtained.

Based on the nature of the inherent meanings of Gyeol from natural object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pand the area of ceramic expression and to produce ceramic works that could convey composites and emotions of daily life.